

2010. 12. 6 제252호

특 집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12. 6 제252호 특집

복지

1. 저소득층에게 연방정부와 州정부 보조금 지급 (미국)
2. 노인친화형 도시 만들기 추진 (뉴욕)
3. '실종 노인 찾기 법령' 제정 추진 (뉴욕)
4. 높은 물가를 고려해 독자적인 최저임금제 시행 (런던)
5.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 공원과 놀이공간 확충 추진 (런던)
6. 사회복지 이용자가 서비스 종류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 도입 (영국 브리스틀市)
7. 시민 안전을 위해 '텔레케어'(Tele-care) 서비스 확대 (영국 카디프市)
8.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지원금 지급 (파리)

-
9. 만 5세 이하 어린이 건강검진 의무화 (베를린)
 10. 중증 장애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 시행 (베를린)
 11. ‘방과 후 어린이교실’ 활성화 (도쿄)
-

복 지

1. 저소득층에게 연방정부와   정부 보조금 지급 (미국)

- 미국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 자녀가 없는 개인에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펀드에서 지원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은 60개월에 한하며, 그 이후에는   정부가 부담함.
- 연방정부 지원 사항은 생활 보조뿐 아니라 주택자금 및 임시거처 지원, 주택관리비(에너지비용)까지 포함됨. 경우에 따라 기본 식료품도 지원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제공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직업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수혜자 선정기준은 소득수준과 주거현황 등에 기초하며,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함. 또한 이 프로그램은 수혜 가정의 가장에게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는 지원 없이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며 육아비용과 교통비도 함께 지원함.
- 연방정부,   정부, 도시정부가 협력해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구직활동에 드는 수수료나 비용을 면제하고 구인정보를 무료로 열람하도록 함.
 - 커뮤니티 단위로 직업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개인이 자신에 맞는 직업을 구하도록 상담과 기술교육을 실시함.

-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989년부터 시작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① 인턴십, ② 영어 학습, ③ 전문직종 기술 연마, ④ 평생교육, ⑤ 야간 지원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해 운영함.
- 보조금 수혜자가 여전히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맞춤형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

(www.nyc.gov/html/hra/html/directory/cash.shtml)

보건서비스 개혁을 위한 ‘보건 지도자 회의’ 개최 (런던)

- 런던시는 효율적인 보건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 지도자 회의’를 최근 개최함. 이 회의에는 국가 보건서비스 기관, 지방정부, 자선단체 등 유관 보건단체가 참여함. 시가 회의를 연 주된 이유는 주민의 평균수명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토트넘 그린지역은 남성 평균수명이 71세인 데 비해 부촌인 퀸스 게이트는 88세임.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은 가난한 자치구가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 비해 2배나 높음. 런던 내 어린이 5명 중 1명은 비만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음.
- 시는 앞으로 자치구가 지역 보건서비스 향상, 자치구 내 환자 치료 등에 책임을 맡고 시는 전체 보건서비스 질 향상,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보건서비스 체계를 개혁할 방침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

2. 노인친화형 도시 만들기 추진 (뉴욕)

○ 뉴욕市는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노인친화형 도시 조성전략에 기초해 세계 35개 도시와 함께 세부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市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9년 약 92만 2000명에서 2030년 135만 명으로 4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4개 분야 57개 세부 정책을 마련함.

- 이 정책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이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노인과 가족을 위해 커뮤니티 단위의 지원을 늘리며, 노인인구의 요구 사항에 맞게 도시계획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4개 분야별 세부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속감과 고용 증대를 위한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확대: 사회보장 정책 강화, 시간은행제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센터의 문화 전문가 채용, 커뮤니티 단위별 고령친화도 평가 등
-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 공급 대책 개발, 노인친화형 주택 개조 우수사례 선정, 저소득층 주택 보조 법령에 의거해 퇴거 위험에 처한 노인 지원 등
- 노인친화적인 공공시설과 교통망 구축: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전용택시 지원 프로그램 실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 유도, 교차로 등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안전도 제고방안 시행 등
- 보건·사회보장 서비스: 노인 체육관 설치 및 할인 프로그램 시행, 낙상 방지시설 설치, 식료품점까지 셔틀버스 운행, 말기 암환자 간병과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지원시스템 구축 등

(www.nyc.gov/html/dfta/downloads/pdf/agefriendlynyc.pdf)

3. '실종 노인 찾기 법령' 제정 추진 (뉴욕)

○ 뉴욕市는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비례해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실종되거나 가족을 찾아오지 못하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미디어, 경찰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연계해 실종 노인 찾기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

- 市는 실종 노인이 대부분 심각한 외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실종 경계 법령'(Silver Alert)을 제정하고자 함. 市는 치매로 발생하는 단기 기억상실과 같은 노인성 질환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존 응급상황 대책인 'Notify NYC'와 같은 도시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이 법령을 시행할 계획임.

· 노인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이 사업은 보호자, 보호기관, 노인 당사자에게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추가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www.nyc.gov/html/dfta/downloads/pdf/silver_alert.pdf)

추운 겨울철 노숙자에게 시립 체육관과 區 청사 개방 (파리)

- 파리市는 노숙자가 추운 겨울철에 잠시 머물 수 있도록 6개 시립 체육관과 5개 區 청사 일부를 노숙자 임시거처로 제공함. 市는 우선 5區와 7區에 있는 시립 체육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한 데 이어 12월 중에는 1, 3, 4, 11區 청사 안에 만들 계획임. 17區에서는 아침 식사와 세면도구도 제공할 예정임.

· 프랑스 철도 국영회사는 市와 연계해 철도역사에 있는 노숙자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지원할 예정임. 또한 노숙자 관련 단체는 市와 손잡고 노숙자 안전대책을 마련 중임.

(www.paris.fr/portail/accueil/)

4. 높은 물가를 고려해 독자적인 최저임금제 시행 (런던)

○ 런던市가 높은 수도권 물가를 감안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세계적인 대기업 등 17개 기관이 최근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함. 골드만삭스, UBS, 제이피모건 등 12개 기업과 3개 교육기관, 2개 민간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9000여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최저임금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市는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기 위해 런던 시민단이 선정한 ‘최저임금 우수기업’ 표시제도를 도입함. 종교계, 대학 및 각종 교육기관, 노동조합, 지역사회 단체 관계자 16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은 최저임금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함.

· 런던 최저임금제는 2001년 런던 시민단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제기했으며 2005년 市 정책으로 정식 채택됨.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기관은 총 115개(기업 50개, 제3섹터 39개, 공공기관 16개, 대학 및 연구소 10개)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근로자 8865명이 혜택을 받음.

· 런던 최저임금은 시간당 7.85파운드(약 1만 4052원)로 영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5.8파운드(약 1만 382원)보다 2파운드(약 3580원) 높음. 런던 어린이 17만 명의 보호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어린이 빈곤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global-giants-sign-pay-staff-london-living-wage)

5.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 공원과 놀이공간 확충 추진 (런던)

○ 런던市는 뉴욕의 어린이 비만 전문가를 초청해 어린이 비만문제 해결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공원과 놀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러한 주장은 런던과 뉴욕의 비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함. ‘두 비만 도시 이야기’란 제목의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공원과 놀이공간 조성이 어린이 비만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 사례를 들어 설명함.
- 이에 市는 어린이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심에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놀이공간을 확충할 계획임. 市는 또한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커뮤니티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london-should-protect-its-parks-and-play-spaces-ny-child-obesity)

장애인 맞춤형 市 안내책자 발간 (뉴욕)

- 뉴욕市는 장애가 있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도시 안내책자를 발간함. 이 안내책자에서는 기존 도시정보 안내책자와 달리 다양한 활동과 시설, 볼거리를 즐기려는 장애인을 위해 호텔, 레스토랑, 관광지 등 도심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 편의시설 유무, 서비스 종류 등을 표시함. 市는 이러한 정보를 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제 시설물에도 표시할 계획임.

(www.nyc.gov/html/mopd/downloads/pdf/accessibility_guide.pdf)

6. 사회복지 이용자가 서비스 종류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 도입 (영국 브리스틀市)

○ 영국 브리스틀市는 市가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방향적인 방식뿐 아니라 양육, 간병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市가 부담하는 ‘케어 다이렉트’(Care Direct) 서비스 방식을 도입해 시행함. 즉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市가 지원하는 방식임.

- 현재 수백 명의 시민이 이러한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을 시간과 장소도 정함. 양육이나 간병, 장애인 가정교사 서비스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케어 다이렉트’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와 상담 내용을 상세히 전달함. 市가 지원하는 다양한 양육 및 간병 서비스 내역도 제공함. 서비스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의 사례도 영상을 활용해 소개함.
 - 이 방식으로 양육 및 간병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市로부터 양육 및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도 이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통역서비스도 제공함.

(www.bristol.gov.uk/ccm/navigation/health-and-social-care/services-for-older-people/social-services---direct-payments/)

7. 시민 안전을 위해 ‘텔레케어’(Tele-care) 서비스 확대 (영국 카디프市)

○ 영국 카디프市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신체적 약자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미연에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텔레케어(Tele-care)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 텔레케어 서비스 시스템은 신체적 약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예를 들어 가스 누출, 실족, 홍수 등) 부착하고 있는 펜던트 버튼을 누르면 市 담당공무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집에도 경보장치를 설치해 긴급하게 치료 및 조치가 필요할 때나 위험에 처했을 때 텔레케어 센터에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함.

- 긴급 연락을 받은 센터 담당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즉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근처 긴급구호 시설에 연락하고 가족이나 간병인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함. 심각한 상황일 때에는 센터 관리자가 위험에 처한 주민의 집을 직접 방문해 즉각 조치를 취하기도 함.

- 신체적 약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경우에도 텔레케어 장치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고 센터에 전화 연결이 되도록 함. 市는 앞으로 일정한 비용만 내면 텔레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www.cardiff.gov.uk/content.asp?nav=2867,2904,3554,3563&parent_directory_id=2865&id=98&d1p1=1)

8.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지원금 지급 (파리)

○ 파리는 2010년 11월 1일부터 경제위기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율이 50% 이상 증가하고 실업률도 2배 이상 높아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소년의 요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市 청소년보호국은 이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함.

- 이 지원책은 8~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즉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특히 학업이나 교육을 받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곤란을 겪는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93224&portlet_id=24329)

장애아를 위해 ‘목표는 높게’ 프로젝트 추진 (영국 브리스틀市)

- 영국 브리스틀市는 장애아를 위해 ‘목표는 높게’(Aiming High)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이 프로젝트는 장애아가 요트와 자전거 타기, 승마, 아이스스케이팅 등의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3개년 사업임. 장애아에게는 독립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가족에게는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휠체어 사용자에게 특수 제작된 요트를 교사의 지도를 받고 직접 조종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이나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장애아를 위해 무료강좌를 개설함. 브리스틀 아이스링크에서는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www.bristol.gov.uk/ccm/content/press-releases/2010/)

9. 만 5세 이하 어린이 건강검진 의무화 (베를린)

○ 독일 연방정부는 어린이의 신체·정신 질환과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함. 부모는 출생 직후부터 만 5세까지 9번에 걸쳐 정해진 때에 소아과에 가서 아이의 건강과 발달상황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부모는 갓난아기 때에는 건강검진을 빠뜨리는 일이 거의 없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저소득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검진을 받지 않는 비율이 높음.
- 이에 베를린시는 2010년 ‘어린이보호법’을 제정하고 생후 3개월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이 기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생후 3~4개월: 모든 장기, 감각기관, 생식기, 피부상태, 신경체계, 운동발달 상황 검사
 - 5~7개월: 청각, 시각, 운동감각 발달정도 검사
 - 10~12개월: 정신발달 정도 검사
 - 21~24개월: 언어발달 정도, 자기 몸 통제정도 검사
 - 34~36개월: 눈에 띄는 이상 증상 검사
 - 46~48개월: 모든 장기, 운동발달, 행동발달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종합검진
 - 60~64개월: 모든 장기, 운동능력, 언어능력 발달상황에 대한 최종 검사, 학교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신체적·정신적 발달 상황 검사

- 市는 대학병원인 샤리테(Charite)에 어린이 정기 건강검진 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법에 근거해 2010년 6월부터 모든 소아과 병원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어린이 명단을 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함.
 - 관리본부에서는 출생기록부와 대조해 어린이가 정해진 기간에 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명단을 작성해 해당 부모에게 검진을 받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그래도 부모가 건강검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담당부서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촉구함.
- 검진 결과 질병이나 장애가 발견될 경우 市는 건강, 사회복지, 교육 기관과 협력해 어린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줌. 이민 가정에 건강검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상담을 할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11/04/317465/index.html)

10. 중증 장애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 시행 (베를린)

○ 베를린에서는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일터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은 일반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함. 베를린시는 2009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일반 직장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함. 지원대상은 장애인 일터에서 일하는 중증 장애인 중 일반 직장으로 옮겨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학교를 중퇴한 장애 청소년임.

-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표는 일반 회사에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1000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임. 이를 위해 市는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회사에 일자리 1개당 최대 3만 6000유로(약 5402만 원)를 5년간 지원함.

· 지원금의 종류와 액수는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일반 회사가 중증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수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함.

- 두 번째 목표는 일반 회사에서 장애 청소년을 위한 500개의 실습생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임. 장애 청소년을 실습생으로 단기 채용하는 회사에는 실습생 일자리 1개당 최대 3000유로(약 450만 원), 실습 종료 후 실습생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5000유로(약 750만 원)까지 지원함.

· 일반 회사가 실습생 채용 형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과의 적응기간을 가진 후 일반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함. 기업이 고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당 최소 15시간을

실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장애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함.

- 이밖에도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퇴한 장애 청소년이 일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장애 청소년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매달 250유로(약 38만원)를 최장 18개월간 지원함. 이 프로그램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됨.

(www.berlin.de/lageso/schwob2010/)

어린이 중환자를 24시간 집중 치료하는 ‘어린이 구명센터’ 지정 (도쿄)

- 도쿄都는 2010년 9월 1일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구명(救命) 치료가 힘든 어린이 중환자를 소아 전문의가 하루 24시간 집중 치료하는 ‘어린이 구명센터’를 지정함. 都는 이 사업에 1억 7800만 엔(약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구명센터에서는 중환자 집중 치료 병상을 구비하고 소아과, 소아외과, 마취과, 뇌신경외과 의사 24시간 당직체제를 구축함.
- 치료대상은 15세 이하 어린이로 소생술을 실시한 뒤 지속적인 구명 치료와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호흡기능 상실, 쇼크, 중증 외상, 중독 등)임. 지정 의료기관은 도쿄대 부속병원, 독립 소아 종합의료센터 등 4개 기관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8/20k8r300.htm)

11. ‘방과 후 어린이교실’ 활성화 (도쿄)

- 일본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어린이가 방과 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하도록 2007년 ‘방과 후 어린이교실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함.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 설치된 ‘방과 후 어린이교실’ 시설은 2007년 6201개소에서 2010년 9280개소로 크게 늘어나고 총사업비는 2007년 70억 7700만 엔(약 969억 원)에서 140억 4300만 엔(약 1924억 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남.
- 학습 지원활동은 2008년부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전체 시설의 53.2%가 실시함. 이 사업 협력자는 교직원 퇴직자, 대학생, 청소년 및 사회교육 단체 등임.
- 도쿄도에서는 都 교육위원회와 복지보건국이 제휴하여 2007년 ‘도쿄도 방과 후 어린이교실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 후 어린이교실 추진사업’과 ‘학동 클럽 사업’(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 사업)을 각각 실시함.
- ‘방과 후 어린이교실 사업’은 방과 후나 주말에 빈 교실을 활용해 아이의 활동거점을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의 협조를 얻어 공부나 스포츠, 문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임. 소요 경비는 중앙정부, 도쿄도, 각 시·구가 1/3씩 부담함.
 - 도내 48개 시·구의 707개 어린이교실을 대상으로 2008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개 시설당 평균 아동 수는 438명이며 평균 운영요원 수는 9명임. 운영요원은 코디네이터, 안전관리원, 학습도우미, 자원봉사자 등임. 대표적인 활동공간은 교정, 체육관, 도서관임. 월간 평균 개설일은 18.1일이며 활동내용은 자유 놀이(77.8%),

학습(9.3%), 스포츠(4.2%), 문화·예능(2.9%), 공작·조리(2.8%), 게임(2.8%) 순으로 나타남.

- 참가 아동들은 상급생이 하급생을 데리고 놀아주고, 자립성과 협동意識이 향상된 점을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함.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나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늘어 인간관계가 넓어진 점을 긍정적인 효과라고 답함. 아이가 집에 와서 방과 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자주 이야기함에 따라 가족 간 대화가 늘어난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조사됨.
- ‘학동 클럽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부모가 직장 근무 등으로 낮에 집에 없을 경우 방과 후 10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관, 빈 교실 등 거점시설을 제공하고 놀이나 학습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자격을 갖춘 지도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교실과 옥외 놀이터가 있어야 함.
- 都是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간 281일 이상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운영시간은 방과 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방학 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2010년 5월 현재 도내 1676개 시설에 8만 409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대기자는 1339명임.

(www.houkago-plan.go.jp/houkago/index.html)

(www.syougai.metro.tokyo.jp/sesaku/houkago/HTML/index.html)